

2025년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문화다양성 공모 <다이아 프로젝트>
심 의 총 평

2025. 04. 03.

심의위원장

최 선 영

(서명)

심의위원

문 해 주

(서명)

심의위원

예 정 원

(서명)

심의위원

손 택 수

(서명)

2025년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문화다양성 공모 <다이아 프로젝트> 심의총평

2025 경기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공모 <다이아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 속 우리들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물음으로 시작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지역 예술가, 예술교육 단체, 문화예술활동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문화가 가진 특수성과 보편성을 넘어 다양성의 관점으로 가능성을 열린 과정과 결말로 시도하고 실험하는 단체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제시된 서류의 밀도와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논의와 조정을 하였으며 여기에 지역과 장르 안배, 사업의 취지를 특별히 고려했습니다.

문화다양성이 거시적이고 폭넓은 개념이기도 해서 여러 지원자가 시의적인 이슈, 다양한 존재 등을 '최대한 많이 아우르며' 언급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이나 경험 속에서 포착한 구체적 질문이 거대한 바다와 같은 문화다양성과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문화다양성은 가깝고도 먼, 쉽고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결국 자신이 학습한 언어가 아닌 실천적 '질문하기'가 분명한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본 지원사업이 지속되면서 장애, 이주민, 성소수자 등의 주제로만 본 사업을 해석하지 않는 예술가나 단체가 늘어나고 있어 반가웠습니다. 사람마다의 개별성, 삶의 다양성이 현장에서 더욱 다층적으로 논의, 상상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특히 주제가 아니라 자신이 만나온, 혹은 만날 '사람'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기획한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지원자는 자신이 만났던 사람을 향하는 지금의 이유와 앞으로의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문화다양성 관련 시의적 주제나 담론 관련 정리된 언어들을 주로 말했습니다. 문화다양성이 결국 '사람'에 대한 관점과 태도라는 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사람'을 계속 고려하며 질문하는 지원자를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민들이 깊고 넓어졌으나 작업의 방향과 참여자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한 지점이 보입니다. 사업마다의 의도를 고려할 때 과정을 기록하는 작업도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과 가까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사업이라는 구조를 신경쓰다보니 다소 경직된 방식으로 계획을 세운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실제 활동에서는 더욱 예술가적이고 비언어적인, 그리고 유연한 활동을 시도해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2025. 4. 3.

심의위원 문해주, 손택수, 예정원, 최선영